

#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 민관 전문가 머리를 맞대다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- ◆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에 따라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관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협의회 개최했다.
- 국제기구(세계동물보건기구, OIE)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헝가리·폴란드 등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·대만 등 주변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 해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.
  - \* 2020년 해외 주요 발생 현황(~6.18) : 유럽 330건(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), 중국·대만 등 주변국 127건(전년 동기 대비 2.5배 증가)
  - \* 전 세계 발생 현황 : [2018년] 540건 → [2019년] 234건(6.18일까지 143건) → [2020.6.18.일까지] 481건
- 농식품부는 학계와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올 겨울 대비 방역대책 등을 점검했다.
  - \* 1,070농가 축종별 현황 : 돼지 947곳, 가금 81곳, 한육우 23곳, 젖소 19곳
  - \* (일자·장소) 6.23., 충북 청주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(참석) 농식품부·농림축산검역본부·대학교수·현장수의사·철새전문가 등 18명
- 또한,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미칠 수 있는 영향,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SOP) 개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. 협의회에 참석한 민관 전문가들은 해외 발생 상황과 철새 이동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위험시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. 특히, 철새와 축산차량 등 농가 내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주요 전파 매개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 또한, 가금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\*을 빠짐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겨울철이 오기 전 방역 교육·홍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.
  - \* 출입 차량과 사람 통제,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, 축사별 강화 갈아신기, 방역시설(울타리·그물망·전실 등)과 소독설비 자체 정비 등
- 현재 추진 중인 전국 가금농가 방역·소독시설 일제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겨울 전 모두 보완하고, 방역 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홍보, 9월부터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. 아울러, 전국 가금농가에서는 올 겨울이 위험시기라는 인식을 갖고 울타리·전실·그물망 등 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.